



군종주보

2026년 5월 31일(제1302호) 지극히 기뻐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은 소유가 아닌 내어 줌”

오늘 우리는 도저히 머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나, 그 본체로 하나이심을 드러내는 신비입니다. 유명한 일화로 어떤 소년이 아우구스티노 주교에게 “삼위일체 신비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더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야기도 존재하지요.

우리는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어야 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삼위의 흘러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애초에 우리는 관계 맺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고유하고 개성 있는 각자이지만,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공동체이며,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실현은 서로 간의 사랑을 내어 줌이 현실화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성자께서 성부

의 뜻을 받아 구원 사업을 걸어가셨듯, 또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듯,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해 개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삼위일체 사랑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내어주는 관계라고 표현해 봅니다. 우리 역시 서로가 서로를 빛으로, 사랑으로 비추어줄 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집착하여 너를 단지 내 용이라든가 대상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떠오르십니까? 부모님께서 ‘이만큼만 사랑해야지’라고 하지 않듯이, 사랑은 그저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일지도 모르며, 우리도 역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서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이 강론을 듣고 읽는 모든 이와 함께하길 빕니다.” 아멘.



조영리(하상비오로) 신부
동해(제22보병사단) 상당 주일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탈출 34,4ㄱ-6.8-9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2코린 13,11-13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3,16-18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상화이야기

성 삼위일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의 예수님을 천사가 받치고 있고 그 옆에는 성부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하느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배치되어 성 삼위일체를 이루는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다. 작은 크기임에도 인물들의 자세와 표정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강한 인상을 준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육체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예수님의 표정, 팔과 다리의 핏줄, 갈비뼈와 쇄골, 피부 주름과 상처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알라바스터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인간의 몸처럼 보인다.

헨스틀지(Hans Multscher, 1400-1467), 1430년경 제작
 부분 채색된 알라바스터, 28.5 x 16.3cm
 리비에히우스(Liebieghaus) 미술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피부에는 푸른 그림자와 붉은 핏자국까지 채색되어 수난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예수님의 머리가 옆으로 기울고 팔이 축 늘어진 모습은 숨을 거두시는 순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부 하느님과 천사의 옷은 알라바스터 특유의 은은하게 빛나는 질감을 그대로 남겨두어 빛이 부드럽게 주변으로 퍼진다.



예수님 세부도



상단 측면 세부도

천사가 예수님을 직접 받치고 있는 모습은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 동시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묘사되어 성 삼위일체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삼위일체 대축일: 오투기 오형준 신부

◆ 교구장 동정

- 탐라대(해병9여단)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31일(주일)
- 성시간
 때·곳: 6월 4일(목) 19:30, 군중교구청 3층 경당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